

한국, '블룸버그 혁신평가' 세계 1위

한국이 블룸버그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력 평가에서 1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이 발표한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기술 집중도 ●교육 효율성 ●연구 집중도 ●특허활동 등 총 7개 부문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1위에 올랐으나 지난해 독일에 1위 자리를 내줬다가 1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R&D 집중도(2위), 제조업 부가가치(2위), 연구 집중도(3위), 특허활동(1위), 첨단기술 집중도(4위) 등에서 5위 안에 들었다. 교육 효율성(13위)과 생산성(36위)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 기획재정부. 사진=타운뉴스DB

기재부는 정부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올해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전망, 한국판 뉴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DNA(=Data·Network·AI) 등 혁신 성장 중점 추진 등이 1위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과 BIG3 산업 추진 가속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혁신조달 성과확대 등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등 규제혁신 성과 창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을 이어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차례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11위, 일본 12위, 중국은 16위에 올랐다. 미국은 대학들의 명성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차례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11위, 일본 12위, 중국은 16위에 올랐다. 미국은 대학들의 명성에 비해 고등교육의 질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질 저하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수출, 코로나에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한국의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나타내며 본격적인 회복의 신호탄을 쏘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주력 품목이 든든히 버티는 가운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탄력을 더했다.

1일 '연합뉴스'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동시에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한 것은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1월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부정적 여건에도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력 품목이 고르게

선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와 가전은 각각 5개월,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무선통신기기는 16년 8개월 만에, 디스플레이는 10년 8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했다.

수출단가 상승세도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수출단가는 6개월 연속 증가하며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실적 달성했다.

수출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기 회복과 교역 환경 개선, 지난해 수출 감소에 따른 가저효과 등이 작용해서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부정 요인을 극복해 연간 수출 증가율 목표치 8.6%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온라인 음식 배달 큰 폭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금지·제한 조치 등 여파로 외식 비율이 줄면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년보다 1.8배나 뛰었다. 반면 문화레저, 여행 및 교통 등은 크게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온라인 거래액이 극명하게 갈렸다.

3일 '아시아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배포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을 들여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1,234억 원을 기록해 전년 거래액(135조2,640억 원) 대비 1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거래액이 108조6,883억 원으로 24.5% 늘어 증가폭이 특히 컸다.

세부 상품군 별로 살펴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7조3,828억 원으로 전년 거래액(9조7,328억 원)보다 78.6% 늘었다. 전 부문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외에도 음식료품(48.3%), 생활용품(44.1%) 등도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전·도서·패션·식품·생활 등 전 부문에 걸쳐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반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69.3%), 여행 및 교통서비스(-53.3%)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서비스부문 온라인 거래액은 27조3,993억 원에 그쳐 전년에 비해 5.4% 줄었다.



▲ 코로나 여파로 작년 음식 배달이 크게 늘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복선)/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